

잘 나가는 반도체·패널·휴대폰 26년 만에 ICT 수출액 신기록

비대면 경제 확산 호재 작용
9월 수출액 213억4000만달러
일평균 수출액 전년동월비 3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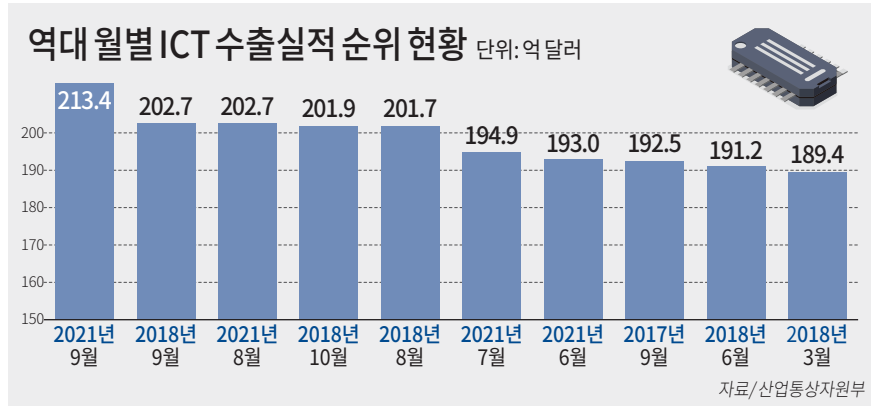
지난달 코로나19가 재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비대면 경제 확산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ICT 수출의 날개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발표한 2021년 9월 ICT 수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213억4000만달러를 기록, 2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넘었다. ICT 수입은 113억7000만달러,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ICT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래 26년 만에 가장 높은 월 수출액이다.

ICT 수출은 작년 6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오히려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경제 정착과 디지털 전환 확대,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타고 주력 시장과 주력 품목에서 모두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평균 수출액은 10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월(7억7000만달러) 대비 32.7%



증가했다.

우리나라 ICT 산업 수출은 IMF 외환위기(1997년), 미국 금융위기(2009년), 국제 원자재 가격 포락(2015년)에 이어 최근 코로나 팬데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세계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ICT 산업 수출 연평균 성장률은 2011년~2020년까지 1.8%에서 2021년~2025년까지 4.5% 성장을 보이고, 2025년엔 약 233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 반도체·패널은 6개월, 휴대폰은 3개월, 컴퓨터·주변기기는 4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27.4%), 디스플레이(15.7%), 휴대폰(19.6%), 컴퓨터·주변기기(49.1%) 등 4개 품목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도체의 경우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28.6%)와 시스템 반도체(31.7%)가 동반 상승했다. 디스플레이는 국내 기업들의 LCD 생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OLED TV 시장 확대,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등 수요 확대에 따른 OLED 호조로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휴대폰도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가 확대되며 완제품·부품품 모두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보조기억장치(SSD)를 중심으로 한 주변기기 수출이 확대되며 역대 월 수출액 중 1위 실적을 기록했다.

중소·중견기업들도 ICT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11개월 연속 수출액 두 자리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다. 지난달 중소·중견기업 ICT 수출은 1년 전보다 19.8% 증가한 49억달러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 개정 재입국 제한 3개월→1개월 단축

사업장 업무 공백 완화 기대
사업주 법령·인권 교육 의무화

14일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이 3개월이나 돼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입국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다. 이후 출국 뒤 3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1개월만 지나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첫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할 때 사업장을 바꾸더라도 이 기간에 제조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 등 한 업종에서 일했다면 조건을 따져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는다.

고용부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용자로서도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폭행이나 성희롱 등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는 경우 남은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 고용했을 경우,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 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관련 교육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밖에 동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서비스업·제조업·농업·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됐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육군, 간부-병사 차별 해소 팔 걷어

병사에도 군인 신분증 발급
상이했던 피복류 보급기준 통일

육군은 신분 간 차별을 줄여, 육군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높일 방침이다. 하사 이상 간부에겐만 지급되던 '군인 신분증'이 병에게도 발급되고, 신분별에 따라 보급기준이 상이했던 피복류도 동일하게 보급된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육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장병에게 군인 신분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공무원과 동일한 군인 신분증이 간부와 군무원 외에 병에게도 발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군조직법 제4조, 군인사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등 법률상 병도 군인 신분으로 규정돼 있지만, 군인 신분증은 발급되지 않았다. 군인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간부 및 군무원과 달리, 병은 외출·외박·휴가 때 휴가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에서 제공하는 군인 할인 혜택을 받는 것도 불편했다.

육군 병에게 군인 신분증이 발급되면, 소속감은 높아지고 신분 간의 위화감은 낮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육군은 '2021 육군본부 국정감사-육군, '내일이 더 강한 좋은 육군'으로 거듭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분 간의 피복 보급도 획파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기존 신분별에 따라 보급기준이 상이했던 ▲신속착용 패드형 전투화 ▲동계 운동복 ▲하계 운동복 ▲춘·추계 운동복 ▲플리스형 스



병에게 발급될 군인 신분증 이미지. 국군조직법 등 관련 법상 병도 군인 신분이지만, 군간부와 군무원에게 공무원증과 같은 형태로 발급된 군인 신분증은 발급된 적이 없었다.

웨터 ▲운동모 등 6종의 피복류를 전장병에게 동일하게 보급 및 착용토록 해 육군 전 장병이 동질감과 전우애를 갖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퍼를 활용해 전투화를 신속하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신속착용 패드형 전투화는 장군 계급의 전유물로 알려진 '장군화'에만 적용됐던 개념이다. 미국 등 선진 군사강국 등은 형태는 다르지만 '짚업 방식'의 전투화의 착용을 유연하게 허용해 왔다. 다만, 낙하산 강하 등 임무상 특별히 안전에 주의가 요하는 직위에는 짚업 방식의 전투화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육군은 내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현재 일선 부대 장병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중이다.

군 안팎에서도 육군의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의 육군 장교는 "미군처럼 장군과 병이 같은 PT복(운동복)을 입고 땀걸음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면서 "장교들의 경우 임관 출신에 따라 달랐던 운동복이 통일된다면 결속력이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국내 60개 기업 산업 경계 허문다... 자율주행 혁신 가속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창립식

국토부 현대모비스, KT 등 참여
혁신 포럼 통해 사업 전략 등 소개

국내 산업계가 자율주행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창립식을 개최했다.

이 협회는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지난 8월 발기인 대회 이후 국토부와 산업부 공동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협회는 완성차와 부품 등 기존 자동차 산업 업체들뿐 아니라, 통신과 플랫폼, IT 등 다양한 분야 6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현대모비스와 카카오모빌리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장이 창립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유투브 생중계 캡처

티, KT와 만도모빌리티솔루션즈 등이

앞으로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자율주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책과 규제 개선 과제 및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성환 현대모비스대표이사가 협회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게 됐다. 창립식에는 조 협회장과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박진부 제1차관,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정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도 협회 등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활성을 위해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확대 등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회는 자율주행산업 혁신 포럼도 함께 열었다. 서승우 서울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와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현대모비스와 KT, 쏘카 등 기업들도 연단에 서서 자율주행 사업 전략 공유 및 방향성을 소개했다.

/김재용 기자 juk@

도로교통공 군 운전면허증, 일반 전환 간소화

행정망 통해 전역자 운전경력 조회

군 전역자가 군 운전면허증을 일반 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는 절차가 한층 간편해진다.

도로교통공단은 13일부터 군 전역자들이 군 운전면허증을 일반면허증으로 교환·발급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

망을 통해 군에서의 운전경력을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군에서 군의 자동차 등을 일정기간 운전한 경력을 갖춘 현역군인이나 전역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군 운전면허증을 일반면허증으로 교환·발급

하고 있다. 매년 1만여 건의 군 운전면허증이 일반면허증으로 교환·발급되고 있는데, 전역자들이 경력확인서 등 서류를 갖추려고 군부대나 면허시험장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다.

군 운전경력정보를 행정망을 통해 조회 시 전역자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해소되고, 기재사항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 군부대와 시험장 재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편익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